

독도동아리(팀) 활동 요약서

동아리 (팀)명	해빛은결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랫동안 논란이 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기 위함. ● 독도가 단순히 우리의 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도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하고, 독도가 왜 우리의 땅인지, 독도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기 위함. ● 생활 속에서 독도를 상기시키기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에 독도를 접목하였고, 이를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함. <p>❖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동아리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 홍보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4명의 조원이 각자 진로에 맞는 활동을 기획하고 총괄하면서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함. ●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색을 독도와 엮어, 제주와 독도가 가지는 ‘바다’라는 공통점을 주요 홍보 수단으로 선택했음. 이를 활용하기 위해 ‘최남단에서 최동단을 바라보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내었고 이를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함. 덕분에 동아리 활동을 볼 때 독도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음. ● 독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교과 선생님께 질문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 이를 통해 독도에 관한 사전 지식 중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고 더 많은 지식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 <p>❖ 특색있는 독도체험 및 홍보활동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 캔들 및 향수 만들기 → 바다는 독도와 제주를 이어주고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존재이기에 바다를 형상화한 캔들과 독도에서 피어나는 꽃을 표현한 향수를 만들었음. 캔들과 향수에 각각 ‘최남단에서 최동단을 바라보다.’와 포스트 주소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였고 이것을 부스 운영을 통해 판매하였음. 수익금은 기부함. ● 독도 포스트 쓰기 → 독도 캔들, 향수 판매를 통한 홍보로는 부족할 수 있는 정보 전달에 무게를 실은 활동이었음. 독도를 사이에 둔 영유권 분쟁, 독도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 독도의 주민 생활, 독도 방문 방법 등 평소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을 포스트로 작성함. 또한, 해빛은결의 목적과 활동 및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동아리 활동의 증거를 남길 수 있었음. ● 독도 명함 나눠주기 →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상가와 변화가를 중심으로 포스트 주소와 동아리 이름이 적힌 명함을 나눠주었음. 명함에 나오지 않은 정보는 말로 설명하면서 독도에 관심을 가지길 촉구함. 	

또, 외국인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설명함.

❖ 주요 성과

- 캔들과 향수가 완판되었고 수익금을 독도 관련 단체(독도사랑운동본부)에 기부하였음.
- 네이버 포스트 조회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 명함 나눠주기 활동을 통해 독도에 관해 잘 몰랐던 외국인에게 독도를 알릴 수 있었음.

❖ 소감 및 일반화 계획

- 교과 공부 이외의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독도 체험 발표 대회에 신청하게 되었음. 독도에 대해 발표하기 위하여 독도의 동식물, 지형, 역사 등을 공부했음. 이 지식을 바탕으로 독도 캔들과 향수를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배려심,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음. 포스트를 작성하며 독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이트를 여럿 알게 되었고 직접 정보를 포스팅 해보며 새로운 경험을 하였음. 명함 나눠주기를 통해 타인에게 용기 있게 말을 걸 수 있는 자신감도 함양할 수 있었음. 단순히 대회를 넘어서 독도를 알리는 노력을 해보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다방면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음. 대회가 끝나도 독도에 대해 잊지 않고, 독도 재단에 기부되는 제품을 소비하거나 독도의 날에 SNS를 통해 독도를 알리며, 3분 스피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독도를 소개하는 등 생활 속에 독도를 접목시킬 것임.